

#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 영적 체험의 함정

| 프레드 데이비스 | 심정요 옮김 |

손가락에 집착할 때 달을 만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진리 추구에서 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진리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정해놓는 것', '진리와 어떻게 접할지 명확한 상태가 있는 것' 등이라고 설명합니다(편집자 주).



## 영적 장애물

그동안 내담자들과 작업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으려 한다. 꽤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글도 쓰고 비디오 〈영적 체험의 기초Spiritual Experiences 101〉까지 찍었다. ‘이해Understanding’라는 최초의 경험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해한 상태’를 드나드는, 다시 말해서 명확함과 혼돈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대개 우리의 기대에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 영적 체험을 정의하기

우선, 영적 체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건으로 소위 에너지, 빛, 비전, 음성 등 영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적 체험의 예를 든다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거나 이해될 때, 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아하!’의 순간도 해당될 것이다. 그 체험은 대개 즐겁다.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체험이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체험은 거대하고 활짝 열려 있으며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일어나며, 집안을 침입한 무장 강도처럼 교묘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소위 진리를 보지 않을 수, 혹은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넓고 심원한 영적 체험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 체험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났는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 체험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

하다. ‘현존’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본디 현재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 밟았던 길을 하루 종일, 매일같이 따르는 것이다.

관심이 깊다면 영적 체험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사람,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최고의 영적 체험이라 해도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면 전할 수가 없다. 홀로인 나I-ness라는 감각 없이는 사건을 기록하거나 전할 수 없다. ‘홀로인 나’ 없이도 체험은 일어날 수 있지만 ‘홀로인 나’가 있어야만 사건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다. 목격자는 아마도 비인격적impersonal일 것이다. 목격자는 근본 바탕으로 돌아오는 중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다. 이 모든 사례가 포함된 체험은 드물지만 한두 가지에 해당되는 체험은 많다. 혹은 ‘번쩍’하며 소소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또한 영적 체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통찰”이라 이름붙인 선반 취급을 할 때가 많다. 통찰에는 매혹이라는 멋진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영적 체험의 몫으로 남겨둔 멋진 상태는 아닌 것이다.

자, 이것이 체험이요, 수단vehicle이다. 그러나 추구자인 우리는 종종 차량vehicle과 탑재 화물을 혼동한다.

## 탑재 화물 분리하기

영성이 깊어지는 시작점은 대개 ‘일견The Glimpse’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대면하는 시점이다. 이는 일종의 영적인 순결을 잃는 것과도 같다.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커다란 깨달음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조그만 깨달음이

라도 감지덕지라고요!” 이것은 사실 협상하는 자세로서, 그들은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길들여져 있다. 이는 도박꾼이 처음엔 대박을 기대하다가 나중에 판돈만이라도 건지기를 바라는 심정과 다를 바 없다. 저렇게 말한 당사자는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결국은 경험을 해봐야 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나는 내 경험을 나누고 싶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 그 편이 나올 것이다. 그 경험은 제한되어있기는 해도 하찮은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간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대중적인 방법으로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터 나는 운 좋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접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들과 대면하거나 스카이프로 화상 대화 중에 그들에게서 ‘번쩍’ 하는 순간을 볼 때가 있었다. 혹은 통화 중에 수화기 너머로 ‘번쩍’ 하는 순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번쩍’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흥분이 가득 담긴 체험담을 이메일로 받아보는 행운도 누렸다.

내가 가르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각성시키는 것은 (아무리 잠깐이라 해도) 그들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시간이 걸리든, 나의 가르침을 꽤 잘 이해했다는 명백한 효과가 있었든, 매우 드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각성이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흔한 일이란 뜻은 아니다. 각성이 드문 일이 아니란 사실에 나보다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한동안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각성이 평범한 사례라는 사실에 즐거워할지언정 충격은 받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내가 보

기에 일견이 드물다는 말은 전적으로 과장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했었지만 계속 들어보라. 새로운 통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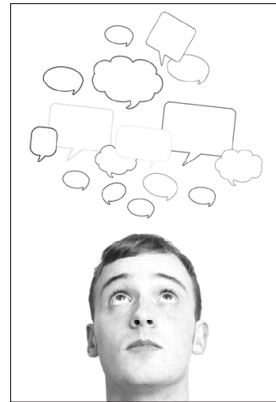
처음 시작할 때는 각성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했고, 많은 이들도 그것을 기대했다. 그 점에서 나는 잘못 생각했다. 나는 영적 추구가 과식하는 사람이나 흡연자 등 다른 중독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 번 끊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끊는 것은 미칠 노릇이다. 추구자는 자신의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각이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듣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한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각성했지만 나중에는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모른다. 자신이 ‘알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난다는 사람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앎’과 ‘무지’를 오가는 이 진동을 일컬어 “나는 찾았다. 그런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신이 울며 내게 감사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섰다. 그래서 나 역시 편리하게도 내가 한 일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다. 나는 잊었을 뿐 아니라 실은 부정했다! 다시금 말하지만, 각성 체험은 끝내주게 경이롭다. 아, 정말이지 이런 꿈같은 일이 또 있을까! 하여 나는 경의를 표한다. 마야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진리가 되는 것 외에는.

## 영적 체험 지속하기

일견이 예전과 달리 그리 희귀한 현상도 아니라는데 이제껏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튀어나올 것이다. 혹은 과거 어느 때 일견이라 할 만한 경험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통해 다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역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튀어나

을 것이다. 내면의 비이원적인 셰익스피어 시대의 코러스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이런 명제는 늘 맞긴 하지만 언제나처럼 절대적 관점에서만 옳다. 잠시만 답이 있는 척 해보자. 그 원인은 아마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음 들려 줄 이야기는 본성과 확연히 오랜 기간 분리가 된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서도 으뜸을 차지하리라 장담한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 데 끝내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른 아닌 나처럼 사 고했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일 것이다. 나는 최근까지도 이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다. 그들의 유형을 나누자면 A) 진리가 어떤 모습일 지 미리 정해놓은 사람, B) 진리와 어떻게 접 할지 명확한 상을 정해놓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전의 내 모습이자 아주 오랫동안 지 난한 곤경의 대상이었다. 결국 하늘의 힘으



로 극복되긴 했으나,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할 수는 없 다. 또 내가 새로운 길로 홀로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이러이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시 ‘이것이 아 닌 다른 어떤 것’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경전이나 책에 나오는 거창한 영적 체험처럼 커다란 굉음과 함께 ‘다가와야’ 한다. 비록 자신 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주와의 심야 협상에서(즉 무의식중 에) 정신적으로 그것을 “더 작고, 더 조용한” 버전으로 강등시켜 놓고 서도 말이다. 이는 마치 포드 자동차를 떠올리면서 포드를 손에 넣는 정신적인 ‘훈련’을 하다가 포드를 얻은 순간 메르세데스를 새로운 목 표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즉시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은 분명 더 거대하고 지속되리라 믿는다. 이것이 영적 체험의 메커니즘이다.

이 접근의 문제점은 ‘이해’를 얻는 데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은총의 부재보다 이런 식의 믿음에 집착하다 보면 일견의 순간은 처음이든, 나중이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각성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각성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가장 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겠지만 예외가 된 까닭은 일상적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훌륭한 옛 조언을 받아들이기

나는 수많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접했다.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진실인 것만은 분명하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무지한 자는 그들이 본 것을 부정하고 생각을 믿는다. 지혜로운 자는 본 것을 믿고 생각을 부정한다.” 바로 이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문제에 본인이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 구절은 확실히 그 이유를 알려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수정과도 같이 명확한 진리를 읽어내게 된다. 진리는 온전히 열려 있으며 공명정대하다. 그 순간 우리는 머리를 굽적이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한다.

단 숨겨진 의미란 없다. 우리 눈은 말한다. “자, 여기야. 주위를 둘러봐. 지금부터가 시작인거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말이야.” 동시에 마음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짜일 리 없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눈이 하는 말과 마음이 하는 말에 점점이 없다보니 무엇을 진실로 수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대개 마음이 하는 말에 길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바라보는 사물도 변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들여져 있다. 나는 마음을 택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새로운 믿음 체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라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생겨날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적 기반을 다져놓으라는 얘기다. 비이원성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 관한 힌트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우리를 가동시키는지를 선포한다. 그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깨달음, 혹은 확실한 예고이다. 우리는 확신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 나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전을 신뢰할 만한 조언으로 받아들인 탓에 이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잠시 혼란스럽긴 해도 현명한 쪽에 내 명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세상을 비추는 내면의 창을 깨끗이 닦고 싶을 뿐이다. 때로 나는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 세션은 다만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 핵심적인 변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바라보는 사물도 변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아직 일견의 경험이 없다면, 속으로 품고 있었던 기대 혹은 요구를 파헤쳐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마존이나 유튜브가 우리에게 어떤



신선한 비트를 줄 것인지 찾아 나서기 전에 말이다. 그다음엔 아마존이나 유튜브를 찾아가도 좋다. 그러나 찾아가더라도 깨어있는 의식이 완전히 망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는 추구자의 태도는 안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이 깨달은 상태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를 보았다. 이는 진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도 틀렸기 때문이다. 맹세하건대,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 진리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 쏟지 않는 한, 우리 밑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진리란 사물이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사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전에 영적 체험이 있었고, 아직도 깨어난 상태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배송 시스템과 탑재 화물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종과 휘파람 소리에 정신을 빼앗겨 일견 도중에 본 것, 즉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추구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순전히 만들어내고 꾸며낸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분리라는 문제를 만들어냈고 우리의 허구가 세운 구조물에 집착하고 있다!

깨달음을 탐구하는 것은, 안개 속처럼 어렵게 보일 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 이야기의 근거를 잘라내는 작업이다. 즉 진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인지(처음이든, 두 번째든 상관없다) 등등 이러한 미래 이야기는 둘 다 영성을 향한 여정을 막아버린다. 그것은 순전히 엉터리다. 그러나 완벽하게 인간적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멈추면 된다. (끝) 

- 이 글은 『A Finger Pointing at the Mo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레드 데이비스** Fred Davis | 2006년까지 25년간 동양의 지혜를 연구하고 수행했다. 그의 추구가 멈추자 진정한 본성이 깨어났다. 그는 '각성의 명확성Awakening Clarity' 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이고 Beyond-Recovery.org의 편집자이자 「되찾은 본성을 넘어서Beyond Recovery」의 저자이다. 그는 아마존에 올라온 영성 서적의 리뷰를 한다. 그의 리뷰는 '불이일원론의 비전Advaita Vision' 사이트나 '비이원적 삶Nonduality Living'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비이원의 하이라이트Nondual Highlights' 사이트에 자주 올라온다. 그는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양이, 강아지, 새들을 사랑한다. 그는 미국 남부의 심장에서 도회지의 은둔자로서 대개는 무명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홈페이지 [awakeningclarity.blogspot.co.uk](http://awakeningclarity.blogspot.co.uk)

역자 | **심정요** | 「지금여기」 번역위원. 덕성여대 영문과 졸업, 전문 번역가